

## 2020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우수상

정○인(정보통신공학과)

#### 위케어멘토링

### 내 용

#### 1. <위케어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동기

위케어멘토링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2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이는 학기 중 멘티(유학생, 장애학생)와 멘토가 팀을 이뤄 멘티의 학업 적응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에서 근로학생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비교과 참여율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도 1학기에는 위케어멘토링(장애학생)이 1팀밖에 지원을 안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우선 멘티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멘토 학생을 멘티와 같은과에서 모집하고, 센터에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과에서 멘토가 매칭되지 않은 멘티 학생이 있었고 프로그램 담당자 선생님께 제가 지원해서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이 있었다면 바로 지원을 했었겠지만, 프로그램 특성 상 소수의 인원으로 모집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저희 학과에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진행되는 이 멘토링이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소통을 좋아하는 제게 기대가 되는 멘토링이었습니다.

#### 2. <위케어멘토링>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 등 참여 경험 소개

첫 멘토링을 갖기전 센터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간단한 인사사항을 주고 받은 후 어떤 과목에 대한 공부를 같이 진행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을 나눴습니다. 멘티학생은 토익이나 컴퓨터활용능력검정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과계열에 다니면서 조금더 자신이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으로 주제를 정하고 첫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CTL)에서 제공해주는 스터디 룸에서 다과와 함께 첫 멘토링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같은 17학번의 인문계열 멘티였고, 근로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위케어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해야하는지의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멘티는 대화하면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라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이론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시간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의 특성과 과목별(3과목) 특성들에 대한 윤곽을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응시했던 시험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공유하였습니다. 실제로 공부했던 족집게 문제지 파일을 멘티 학생에게 공유해주었으며, 스터디 시간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오면 풀이와 함께 비슷한 문제 유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첫 멘토링 이후 코로나19가 조금 더 민감해진 때에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멘티가 2과목 풀이하는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20문항에 대한 풀이와 팁을 준비해서 화상통화로 화면을 공유하며 풀이해주었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 이후로 오랜만에 연속적으로 이론을 설명해주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이 기쁜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링을 마친 후에는 최종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서로간의 느낀점에 대해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멘티 왈, “컴활이 생각 외로 알고 있던게 몇 부분있어서 재미있기도 했었고 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멘토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에 했던 멘토/멘티 활동 보다 배우는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멘티와 1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멘티가 제게 해준 마지막으로 해준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웠습니다.

또한 20-1학기 위케어 멘토링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을 준비했었지만, 멘티의 요청으로 20-2학기 위케어 멘토링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멘티의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좋은 인연의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티 친구에게는 공과계열의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도울 것이며, 제가 인문계열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인생에서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연과 좋은 사람을 알고, 얻게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싶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3.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 프로그램의 우수한 점 등 프로그램의 장점 소개

첫째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정(情)이 좋았습니다. 멘티는 남자,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갑인 나이이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민을 터울없이 나눌 수 있음이 좋았습니다. 처음보는 제게도 멘티가 마음을 많이 열어주어서 서로 간의 현재 고민, 미래 고민들을 나누고 조언해줄 수 있음이 좋았습니다.

둘째로 멘토링을 통해 얻는 성과금입니다. 멘토는 장학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멘티는 상품권으로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팀에 선정되면 따로 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학기에는 조금 더 상금이 올라서 멘토, 멘티가 얻을 수 있는 성과금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멘토, 멘티 서로간 얻어갈 수 있는 물질적인 성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셋째로 상호적인 지식 공유입니다.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에게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멘토링 시간에 서로가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나누면서 서로간의 본보기가 되고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어떤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지?

사람을 좋아하는 학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류의 학우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알게되고 알아간다는 것에 흥미로웠고,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이라는 편견없이 저는 타과에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을 얻고 싶은 학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멘토링 주제를 선정하면서 토익과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 시험 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토익이 대략 몇점정도 나오는지 서로 공유했습니다. 멘토로 선정된 저보다 멘티 학우가 토익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친구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친구

에게 배워갈 점도 정말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케어 멘토링을 신청하시려는 여러 학우 분들! 멘토로 선정되실 그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5.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일단 물질적인 부분(상금)이 높아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1학기->2학기) 프로그램에 임해보면서 10시간 멘토링 진행이지만 멘토는 멘토링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고, 모임을 준비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기 중에 진행하다보니 개인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모임을 준비해야하고 그만큼의 댓가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2학기에 상금이 올라서 알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특성상 과대한 홍보도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같은과에서 멘토-멘티를 매칭해주는 방식이지만 저처럼 타과 학생들도 멘토로 참여하고 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방법을 조금 더 확장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기회로 삼고 서로 얻어가게 있는 멘토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6. 이 프로그램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정(情)주나요 안 정(情)주나요~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면서 처음보는 멘티의 마음을 10시간 안에 열 수 있는 것은 멘토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학생들이 기본으로 갖춰가는 리더쉽에 있어서 혹은 학교 핵심역량인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말로만 자신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부딪쳐보면서 이끌어 내는게 자신의 진짜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을 주고 안주는 것은 멘티의 마음이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멘토의 스펙이자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